

[논단]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자,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의 사목적 사랑*

■
전 영 준

[가톨릭대학교 영성신학 교수·신부]

-
-
- I. 시작하며
 - II. 역사적 배경
 - 1. 구 스위스 연방
 - 2. 도시 제네바
 - 3. 종교개혁
 - 4. 제네바 주교좌(座)
 - III. 교육 환경
 - 1. 라 로슈(La Roche)
 - 2. 안시(Annecy)
 - 3. 파리(Paris)
 - 4. 파도바(Padova)
 - IV. 수도회 설립
 - 1. 전통적인 수도회
 - 2. 새로운 수도회
 - V. 끝맺으며
-
-

I. 시작하며

지난 2022년은 프란치스코 드 살(François de Sales, 1567~1622) 성인 서거 400주기가 되는 해였다. 한국 가톨릭교회 안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친숙하면서도 낯선 인물이다. 요한 보스코(Giovanni Melchiorre Bosco, 1815~1888) 성인이 수도회를 설립할 때 평소 감명받았던 성인에게 봉헌하면서 ‘살레시오회’(Società di San Francesco di Sales)라는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나마 성인의 이름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 이 글은 2024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알려졌다. 물론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가톨릭 신자라면 『심신 생활 입문』(*L'Introduction à la Vie Dévote*)¹⁾의 저자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Franciscus Salesius)라는 라틴어식 이름을 접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가톨릭교회 신자들은 여전히 그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 않다.

프란치스코 드 살은 17세기 초에 제네바(Geneva) 교구장 주교였다. 하지만 이미 16세기에 제네바가 ‘개신교의 로마’라고 불리며 장 칼뱅(Jean Calvin, 1509~1564) 등 종교 개혁주의자들의 활동 중심지가 되는 바람에 여러 명의 전임 교구장들은 스위스 연방과 동맹을 맺은 제네바에 머물지 못하고 이웃한 사부아(Savoie) 공국(公國, Duchy)²⁾에 있으면서 교구장직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프란치스코는 평생 개신교의 도전에 직면해야 했으며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다시 가톨릭 신앙으로 되돌아오도록 어려움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개신교와 대면해야 했던 상황이 프란치스코가 사제로서, 또 주교로서 수행했던 사목적 방향을 형성하는 유일한 배경이라고 볼 수 없다. 영국 출신 가톨릭교회 사학자 필립 휴즈(Philip Hughes, 1895~1967)는 프란치스코를 경건한 인문주의자(人文主義者)로 평가하였다.³⁾ 프란치스코가 인문주의 색채를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교육받을 당시에 처해 있던 주변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근세 르네상스와 더불어 출현한 인문주의가 교회의 가르침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프란치스코는 인문주의의 좋은 점을 교회 정신으로 승화해 경건한 그리스도교 인문주의를 완성하면서 자신의 사목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프란치스코는 교회 안팎에서 정치적·문화적·종교적으로 우리가

1) 참조: Franciscus Salesius(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심신 생활 입문』, 서울가르멜여자수도원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1.

2) 중세 유럽에서 큰 나라로부터 ‘공작’(公爵)의 작위를 받은 군주가 다스리던 작은 나라. 공작은 오등작(五等爵) 중에 첫째 작위이다.

3) Cf. Philip Hughes, *A Popular History of the Catholic Church*,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54, p.196.

짐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한 프란치스코의 사목적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그가 성장 과정에서 접한 교육적 배경과 사목 활동에서 경험한 특별한 시도를 두루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작업을 통해 발견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사목적 방향이 오늘날 한국 가톨릭교회에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신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역사적 배경

옛 제네바 교구 교구장이면서도 제네바에 머물지 않았던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舊) 스위스 연방(Confederacy)과 제네바 백국(伯國, County)⁴⁾ 내 도시 제네바 사이의 정치적·종교적 역학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구 스위스 연방

오늘날 스위스 지역에 해당하는 슈바벤(Schwaben) 공국을 통치하던 호엔슈타우펜(Hohenstaufen) 가문 출신 마지막 신성 로마 황제 프리드리히 2세(Friedrich II, 재위 1220~1250)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독일 왕 콘라트 4세(Konrad IV, 재위 1237~1254)마저 사망하자, 호엔슈타우펜 가문 시대는 막을 내리고 슈바벤 지역의 통치 세력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독일 왕위가 공석이 되면서 ‘대공위(大空位) 시대’(Interregnum, 1254~1273)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1273년에 신성 로마 제국 내 일곱 선제후(選帝侯) 회의는 슈바벤 출신으로 합스부르크(Habsburg) 가문 백작 루돌프(Rudolf, 재위 1239~1291)를 독일 왕으로 선출하였다.⁵⁾

4) 중세 유럽에서 큰 나라로부터 ‘백작’(伯爵)의 작위를 받은 군주가 다스리던 작은 나라. 백작은 오등작 중에 셋째 작위이다.

5) 참조: 임영태, 『스토리 세계사 5 중세편·II』, 21세기북스, 2014, 94-95쪽.

독일 왕 루돌프 1세(Rudolf I, 재위 1273~1291)와 합스부르크 왕조가 점점 세력을 넓히자 슈바벤 지역에서 합스부르크 가문에 반기를 들고 독립하기 위해 분권화된 작은 공화국 형태를 지니고 자치주(州, Canton)를 구현하는 구 스위스 연방이 1291년에 출현하였다. 오늘날 스위스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우리(Uri), 슈비츠(Schwyz), 운터발덴(Unterwalden)이 모여서 연방을 창설하였다. 이후 1351년에 취리히(Zürich), 1353년에 베른(Bern), 1481년에 프리부르(Fribourg) 등이 연방에 참가하였다. 1508년에 신성 로마 황제가 되는 독일 왕 막시밀리안 1세(Maximilian I, 재위 1486~1519)가 아직은 10개 주로 구성된 구 스위스 연방을 1499년에 독립 국가로 승인하면서 연방은 차차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1513년에 아펜첼(Appenzell)이 연방에 가입하면서 근세 유럽 종교개혁이 시작하려는 시기까지 정복과 매입 및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독립적인 구 스위스 연방은 총 13개 주로 구성되었다.⁶⁾

2. 도시 제네바

도시 제네바는 제네바 백국과 사부아 공국과 함께 구 스위스 연방보다 훨씬 복잡한 역사적·정치적 여정을 지냈다. 제네바 백국은 10세기경에 출현하면서 라 로쉬(La Roche)를 수도로 정했다가 1219년에 안시(Anncey)로 천도했지만, 가톨릭교회는 4세기 무렵에 도시 제네바에 이미 제네바 교구를 설립하였다.⁷⁾ 신성 로마 황제 프리드리히 1세(Friedrich I, 재위 1152~1190)가 1154년에 제네바 주교 아르두치우스 드 포치니(Arducus de Faucigny, 재임 ?~1185)를 영접하고 그를 신성 로마 제국 왕자로 임명하면서, 제네바 주교들은 제네바 백작에 저항하며 군주로서 도시 제네바의 지배권을 지속해서 누리게

6) 참조: Wolfgang Reinhard(볼프강 라인하르트) 엮음, 『(하버드 C.H.베크) 세계사: 1350~1750 세계 제국과 대양』, 이진모·공원국 옮김, 민음사, 2020, 930-931쪽; Philip Schaff(필립 샤프), 『스위스 종교개혁』, 교회사 전집 8, 박경수 옮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22쪽.

7) 참조: <https://www.catholic-hierarchy.org/diocese/dg216.html>(2024년 5월 19일 검색).

되었다.

그런데 1387년에 제네바 주교 아데마르 파브리(Adhémar Fabri, 재임 1385~1388)⁸⁾는 도시 제네바를 시민 공화국으로 인정하는 헌장을 선포하였다. 즉, 주교는 도시의 군주이고 제네바 백작은 성의 소유주이지만, 도시민은 자유로운 권리를 누린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교 아데마르는 자신의 후계자들도 이 헌장의 내용을 존중하기를 바랐다. 따라서 제네바 시민들은 자신들과 연합하여 도시민의 권리를 지켜주고 백작의 압박을 막아주는 제네바 주교에게 충성하였다.⁹⁾ 하지만 제네바 백작 아마데우스 3세(Amadeus III, 재위 1320~1367)의 아들이었던 로베르(Robert de Genève, 1342~1394)가 대립교황 클레멘스 7세(Clemens VII, 재임 1378~1394)로 선출되었는데, 그는 교황으로서 제네바 주교 아데마르가 선포한 헌장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직을 유지하는데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자 1392년에 계승한 제네바 백작 직을 앞세워 제네바 백국에서 백작의 세습 재산을 사용하였다.¹⁰⁾

1394년에 대립교황 클레멘스 7세의 죽음으로 제네바 백국은 제네바 가문 백작 시대를 끝내고 투아르-빌라르(Thoire-Villars) 가문 백작 시대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제네바 백작 오돈 드 빌라르(Odon de Villars, 재위 1400~1401)는 1401년에 사부아 백작 아마데우스 8세(Amadeus VIII, 재위 1391~1416)에게 제네바 백국을 매각하였고, 법률적 절차는 1424년에 완결되었다. 제네바 백국과 인접한 사부아 백국의 기원은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르고뉴(Bourgogne) 제2 왕국 마지막 왕이었던 루돌프 3세(Rudolph III, 재위 993~1032)가 1003년에 ‘하얀 손’(biancamano)이라 불리던 움베르토 1세(Umberto I, 재위 1032~1047)를 백작으로 추대하고 지지했으나 루돌프 3세가 1032년에

8) 참조: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dlroche.html>(2024년 5월 19일 검색).

9) 참조: Thomas M. Lindsay(토마스 M. 린제이), 『宗教改革史(II)』, 이형기·차종순 옮김,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79~80쪽.

10) 참조: J. N. D. Kelly / Michael Walsh(존 노먼 데이비스 켈리·마이클 월시), “클레멘스 [7세], 대립교황”, 『옥스퍼드 교황 사전』, 변우찬 옮김, 분도출판사, 2014, 346~348쪽.

사망하자 움베르토 1세는 신성 로마 황제 콘라트 2세(Konrad II, 재위 1027~1039)를 지지하였다. 이에 황제 콘라트 2세는 움베르토 1세를 백작으로 임명하였고, 움베르토 1세는 사부아 가문의 시조가 되어 사부아 백국 시대를 열었다.¹¹⁾

그런데 훗날 신성 로마 황제가 되는 독일 왕 지기스문트(Sigismund, 재위 1410~1437; 황제 재위 1433~1437)가 사부아 백작 아마테우스 8세의 능력을 인정하여 1416년에 사부아 백국을 공국으로 승격시키면서 사부아 공작이 제네바 백국을 함께 통치하였다. 그러던 중 사부아 공작 아마테우스 8세(재위 1416~1440)는 아내와 아들이 연이어 사망하자 크게 실망하고 1434년에 시골로 물러가 은수 생활을 하면서 공국의 외교 업무만 관장하였다.¹²⁾

한편 바젤 공의회(1431~1437)에서 공의회 우위론자들은 공의회 우위를 반대하는 교황 에우제니우스 4세(Eugenius PP. IV, 재임 1431~1447)를 1439년에 폐위시키고, 사부아 공작 아마테우스 8세를 대립교황 펠릭스 5세(Felix V, 재임 1439~1449)로 선출하였다. 대립교황 펠릭스 5세는 공의회 우위론자들이 유지하던 공의회의 재정을 도왔다.¹³⁾ 한편 대립교황에게 우호적이었던 제네바 주교 프랑수아 드 메즈(François de Meez, 재임 1426~1444)¹⁴⁾가 1444년에 사망하자 대립교황 펠릭스 5세는 제네바 교구 주교이자 행정관으로 임명되어 사망할 때까지¹⁵⁾ 도시 제네바를 통치하였다.

이후에도 사부아 가문이 제네바 주교이자 행정관으로 계속 임명되면서, 제네바 시민들은 자신들과 연합하던 제네바 주교직을 사부아 공작 가문이 동시에 맡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을 핍박한다고 불만을 표출하였다.¹⁶⁾ 이렇게 도시민의 자유 권리

11) 참조: Norman Davies(노먼 데이비스), 『유럽: 하나의 역사』, 왕수민 옮김, 도서출판 예경, 2023, 834쪽.

12) 참조: J. N. D. Kelly / Michael Walsh(존 노먼 데이비슨 켈리·마이클 월시), “펠릭스 5세, 대립교황”, 『옥스퍼드 교황 사전』, 367쪽.

13) 참조: Hubert Jedin(후베르트 에딘), 『세계공의회사』, 최석우 옮김, 분도출판사, 2005, 89-91쪽.

14) 참조: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meczf.html>(2024년 5월 19일 검색).

15) 참조: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savoiea.html>(2024년 5월 19일 검색).

를 도모하던 제네바 시민들은 구 스위스 연방에 속한 자치주와의 동맹에서 해법을 찾았다. 사부아 공작 샤를 3세(Charles III, 재위 1504~1553)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도시 제네바는 1519년에 프리부르와 그리고 1526년에 베른과 동맹을 맺는 조약을 체결하고 도시민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였다. 따라서 1530년에 사부아 공국은 도시 제네바를 공격하였으나, 동맹인 베른과 프리부르가 중재에 나서서 도시 제네바를 보호하였다.¹⁷⁾

3. 종교개혁

이 시기 유럽은 종교 개혁주의자의 출현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였다. 1519년에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가 취리히(Zürich)에서 설교한 것이 기폭제가 되어 1523년에 취리히시(市)의회가 가톨릭교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신교를 지지한 이후 1528년부터 본격적으로 취리히는 스위스 연방에 여러 주(州)를 차례로 개신교를 지지하도록 연합하였다. 따라서 1529년과 1531년에 스위스 연방 내에서 개신교회를 지지하는 주와 가톨릭교회를 지지하는 주 사이에 ‘카펠 전쟁’(Kappel Wars)이 있었고 1531년에 가톨릭 측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주가 개신교를 지지하였다. 이 전쟁 중인 1531년에 츠빙글리가 사망하였다.¹⁸⁾

도시 제네바와 동맹을 맺은 베른이 1528년에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고 개신교를 지지하자 제네바도 서서히 개신교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여전히 가톨릭교회를 지지하던 프리부르는 이런 모습을 목격하자 1532년에 제네바를 비난하였으며, 1534년에 제네바와 동맹 관계를 철회하였다.¹⁹⁾ 하지만 베른은 1533년에 도시 제네바가 개신교

16) 참조: Thomas M. Lindsay(토마스 M. 린제이), 위의 책, 80~81쪽.

17) 참조: 같은 책, 81쪽; Carter Lindberg(카터 린드버그), 『유럽의 종교개혁』, 조영천 옮김,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371쪽.

18) 참조: August Franzen(아우구스트 프란쾰), 『教會史』, 최석우 옮김, 분도출판사, 1996, 321~325쪽.

19) 참조: Thomas M. Lindsay(토마스 M. 린제이), 위의 책, 82~84쪽; Philip Schaff(필립 샤프), 위의 책, 236쪽.

를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1532년부터 도시 제네바에서 활동을 시작했던 기욤 파렐(Guillaume Farel, 1489~1565)은 시의회를 설득하여 1535년에 제네바에서 미사를 집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시의회는 1535년 말까지 가톨릭 성직자들을 제네바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하였고, 1536년에 제네바 시민들은 개혁적인 일련의 조치들을 받아들였다. 다만 도시 제네바에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던 베른은 제네바 시민들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536년에 도시 제네바의 독자적인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²⁰⁾ 사부아 공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도시 제네바는 제네바 공화국을 세우고, 베른과 재차 동맹을 맺고 베른의 보호 아래 개신교를 지지하는 ‘연합주’(聯合州, associated state) 형식으로 구 스위스 연방에 참가하였다.²¹⁾ 그리고 파렐의 권유로 칼뱅은 1차로 1536~38년에 2차로 1541년부터 죽을 때까지 도시 제네바에서 활동하면서 칼뱅주의를 확산시켰다.²²⁾

4. 제네바 주교좌(座)

동맹이었던 프리부르와 베른과 연합하여 제네바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세속 통치자이기도 한 제네바 주교와 그를 지지하는 자들을 압박하였다. 다만 가톨릭교회를 지지하는 프리부르는 제네바 교구의 권한은 여전히 교구장 주교에게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제네바 시의회도 교회의 관할권에 선뜻 도전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시민들이 교회의 행정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1532년과 1533년에 칙령을 반포해 교회 문제에 관해서도 시의회가 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이런 가운데 제네바 주교 피에르 드 라 봄(Pierre de La Baume, 재임 1522~1543)²³⁾은 압박을 피해

20) 참조: Carter Lindberg(카터 린드버그), 위의 책, 371~372쪽.

21) 참조: Thomas M. Lindsay(토마스 M. 린제이), 위의 책, 109~110쪽.

22) 참조: Jean Comby(장 콩비), 『세계 교회사 여행 2 근대·현대 편』, 노성기·이종혁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2, 69~70, 80쪽.

23) 참조: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dlbaup.html>(2024년 5월 28일 검색).

1527년에 도시 제네바를 잠시 떠났다가 1533년에 돌아왔으나 제네바의 개혁 조치들을 목격하고 다시 제네바를 떠났다. 하지만 여전히 제네바에 남아 있는 가톨릭 수도자들과 재속 사제들은 제네바 주교와 사부아 가문이 도시 제네바를 다시 통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1535년에 시의회가 주체한 공개토론회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²⁴⁾ 결국, 제네바 주교 피에르 드 라 봄은 1535년에 주교좌 사제단과 함께 사부아 공국 내 안시에 임시 주교좌를 마련하였다.²⁵⁾

도시 제네바가 개신교를 지지하는 상황을 지켜보던 사부아 공국이 제네바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자,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정복하려던 발루아(Valois) 왕가 출신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François I, 재위 1515~1547)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여 합스부르크 왕가 출신 신성 로마 황제 카를 5세(Karl V, 재위 1519~1556)를 견제하였다. 프랑수아 1세가 베른에 특사를 파견해 베른이 제네바를 대신해 사부아 공국과 전쟁을 치르기를 부추기자, 베른은 1535년 말에 사부아 공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1536년 초에 군대를 보내 제네바 호수 주변까지 진격하여 도시 제네바의 독립을 도왔다. 또한, 프랑수아 1세는 사부아 공국에도 특사를 파견해 항복하라고 요구하였으며, 1536년 2월 말경에 사부아 공국을 정복하였다.²⁶⁾ 결국, 제네바 교구장은 도시 제네바의 주교좌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두 왕가의 또 다른 충돌 때문에 사부아 공국은 독립의 기회를 얻었다. 프랑스 국왕 앙리 2세(Henri II, 재위 1547~1559)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Felipe II, 재위 1556~1598)와 1557년에 북유럽 저지대 지역 생-캄탱(Saint-Quentin)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사부아 공작 에마누엘레 필리베르토(Emanuele Filiberto, 재위 1553~1580)가 스페인 군대를 지휘해 프랑스 군대를 대파하고 승리하였다. 그 결과로 1559

24) 참조: Thomas M. Lindsay(토마스 M. 린제이), 위의 책, 96~97, 108~109쪽.

25) 참조: Philip Schaff(필립 샤프), 위의 책, 236~237쪽.

26) Cf. Michael Mallett / Christine Shaw, *The Italian Wars, 1494-1559*, UK: Pearson Education Limited, 2012, p.230; Thomas M. Lindsay(토마스 M. 린제이), 위의 책, 109~110쪽.

년 4월에 프랑스는 스페인과 ‘카토-캉브레지 조약’(Peace of Cateau-Cambrésis)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부아 공작은 과거 사부아 공국 영토를 돌려받고 독립할 수 있었다.²⁷⁾ 이후에도 사부아 공작 에마누엘레 필리베르토는 구 스위스 연방이 점령한 지역을 회복하려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564년에 사부아 공국은 베른과 ‘로잔(Lausanne) 조약’을 체결하고 제네바 호수 주변 남쪽 지역을 돌려받았으나, 도시 제네바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1569년에 사부아 공국은 발레(Valais)와 ‘토농(Thonon) 조약’을 체결하고 제네바 호수 주변 또 다른 지역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사부아 공국은 과거 제네바 백국 지역을 즈네부아(Genevois) 주(州, province)로 명명하여 완전히 합병하고 주도(州都)를 안시로 정했다. 따라서 사부아 공국이 도시 제네바를 포기하자 제네바 교구는 1535년에 안시에서 임시로 마련했던 주교좌를 한동안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프랑스가 프랑스 혁명 전쟁(French Revolutionary Wars, 1792~1802)을 시작하고 1792년에 알프스 산맥 서쪽 사부아 지역을 정복하면서 또다시 안시는 프랑스에 편입되었다.²⁸⁾ 이후 프랑스 혁명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빈 회의(Congress of Vienna, 1814~1815)의 결정에 따라서, 프랑스는 1815년에 사부아 지역을 사르데냐 왕국에 반환했고 스위스 연방은 영세중립국 지위를 부여받아 독립하였다.²⁹⁾ 하지만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사르데냐 왕국은 1860년에 프랑스와 ‘토리노(Torino) 조약’을 체결하고 사부아 지역을 프랑스에 할양하였다.³⁰⁾

그런데 1779년에 그르노블(Grenoble) 교구에서 분리 설립된 샹베리(Chambéry) 교구³¹⁾ 첫 교구장이었던 주교 미셸 콩세이(Michel Conseil, 재임 1780~1793)가 사망한 1793년은³²⁾ 사부아 지역이 그 당시

27) 참조: Daniel Rivière(다니엘 리비에르), 『프랑스의 역사』, 최갑수 옮김, 까치글방, 2003, 146~147쪽; 허연, 『이탈리아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142~143쪽; Michael Mallett / Christine Shaw, *op.cit.*, p.23.

28) 참조: 김용구, 『世界外交史(上)』,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3~4쪽.

29) 참조: 같은 책, 28쪽.

30) 참조: 같은 책, 124~125쪽.

31) 참조: <https://www.catholic-hierarchy.org/diocese/dcham.html>(2024년 5월 30일 검색).

가톨릭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프랑스 영토로 합병된 직후여서였는지 사도좌는 샹베리 주교좌를 한동안 공석으로 두었다. 그사이 교황 비오 7세(Pius PP. VII, 재임 1800~1823)는 프랑스 제1 통령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éon Bonaparte, 1769~1821)의 제안을 받고 1801년 7월에 프랑스와 정교조약을 체결하고, 프랑스 내에서 가톨릭교회를 복원시켰다.³³⁾ 마침 제네바 주교 조제프-마리 파제(Joseph-Marie Paget, 재임 1787~1802)가 1802년 2월에 교구장직을 사임하자 후임 교구장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놓아둔 채,³⁴⁾ 오히려 사도좌는 1802년 4월에 주교 르네 데 몽스티에 드 메랭빌(René des Monstiers de Mérinville, 재임 1802~1805)을 9년간 공석이었던 샹베리 후임 교구장으로 임명하였다.³⁵⁾ 따라서 안시에 있었던 제네바 교구 임시 주교좌는 공석이 되었다.

그리고 1815년에 영구 독립한 스위스 연방에 포함된 도시 제네바를 주교좌로 두었던 제네바 교구를 1821년에 스위스 연방에 있는 로잔 교구와 합쳐 로잔 및 제네바(Lausanne et Genève) 교구가 탄생하였다.³⁶⁾ 또한, 사도좌는 1822년에 샹베리 대교구에서 안시 교구를 분리 설립하였다.³⁷⁾ 그러므로 프란치스코 드 살은 스위스 종교개혁의 여파로 도시 제네바를 떠나 사부아 공국 내 안시에 임시로 마련한 주교좌에서 사부아 공국이 한 차례 프랑스에 합병되었다가 수복한 뒤에 여전히 국제 정세가 불안한 시기였던 17세기 초에 제네바 교구장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32) 참조: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con.html>(2024년 5월 30일 검색).

33) 참조: J. N. D. Kelly / Michael Walsh(존 노먼 데이비슨 켈리·마이클 월시), “비오 7세”, 『옥스퍼드 교황사전』, 449쪽.

34) 참조: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pagetj.html>(2024년 5월 30일 검색).

35) 참조: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monm.html>(2024년 5월 30일 검색).

36) 참조: <https://www.catholic-hierarchy.org/diocese/dlaus.html>(2024년 5월 29일 검색).

37) 참조: <https://www.catholic-hierarchy.org/diocese/danne.html>(2024년 5월 29일 검색).

III. 교육 환경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은 사부아 공국 가톨릭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프랑수와 드 살(François de Sales)은 살(Sales)과 노블(Novel)의 영주였고, 어머니 프랑수아즈 드 시오나(Françoise de Sionnaz)는 라 툴르(La Thuile)와 발리에르(Vallières)와 부아지(Boisy)의 영주의 외동딸이었다. 귀족인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장래 치안판사로서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특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는 다른 계획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1. 라 로슈(La Roche)

프란치스코는 6~8세 때인 1573~75년에 고향인 토랑(Thorens)에서 북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라 로슈에 있는 플랭-샤토(Plain-Château)의 공국 중등학교(ducal collège)³⁸⁾에서 공부하였다. 도시 제네바에서 남동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라 로슈는 1219년 이전에 한때 제네바 백국의 수도이기도 하였다.³⁹⁾

라 로슈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흔적은 15세기에 나타난다. 사부아 공국 프티-보르낭(Petit-Bornand) 출신으로 사부아 신학자이자 인문주의자였던 기욤 피셰(Guillaume Fichet, 1433~1480경)가 1450년 이전에 라 로슈에서 공부하였다. 이 학교는 늦어도 1440년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라 로슈에서 학업을 마치고 파리 소르본느 대학 학장을 역임했던 기욤 피셰는 인문주의자로서 본문을 훼손하는 라틴어 필사가들의 실수를 더는 용납할 수 없어서 1470년에 독일로부터 들여온 인쇄기를 프랑스 파리에 최초로 설치하였다.⁴⁰⁾

38) ‘collège’라는 명칭을 썼으나, 중등교육 과정을 배우는 학교로써 우리나라의 중등학교와 중학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9) 참조: <https://www.larochesurforon.fr/histoire-1150>(2024년 7월 15일 검색).

40) 참조: Mary Purcell(메리 피셀), 『베드로 파브르 성인』, 김치현·김학준 옮김, 가톨릭

로올라의 이냐시오(Ignacio de Loyola, 1491~1556)와 함께 예수회 공동 설립자였던 신학자 피에르 파브르(Pierre Favre, 1506~1546)는 사부아 공국 출신으로 안시에서 동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생-장드-식스트(Saint-Jean-de-Sixt) 인근 르 그랑-보르낭(Le Grand-Bornand)에 있는 작은 마을 빌라레(Villaret)에서 태어났다. 파브르는 10살 무렵인 1516년 9월 이후에 고향에서 남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톤느(Thônes)에 있는 병원 원목 신부에게 문법과 산술 기초를 배웠다. 파브르가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이자, 1517년에 부모님은 그가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파브르는 고향에서 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라 로슈에 있는 중등학교에 입학하여 1525년에 파리로 떠나기 전까지 그곳에서 공부하였다.⁴¹⁾

한편 1530년에 라 로슈에서 루터교에 영향을 받은 주민들이 가톨릭 성직자들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1536년에 교황 바오로 3세(Paulus PP. III, 재임 1534~1549)는 교황 칙서를 통해 라 로슈에 있는 한 본당을 의전 사제단 동료단 성당으로 지정하고 성 요한 세례자에게 봉헌하였다. 그는 이곳이 제네바에서 칼뱅이 주도하는 개혁에 대항하는 개혁의 요충지가 되기를 바랐다. 이후, 라 로슈에서는 의전 사제단의 영향이 커졌다.

1561년에 의전 사제였던 앙주빌의 장(Jean d'Angeville)이 자신의 집을 제공해서 문법학교를 설립했는데 1569년에 중등학교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의전 사제단에 의해 설립된 학교는 라 로슈 지역의 교육 기능을 담당할 수 있었다.⁴²⁾

10대가 되기도 전인 아주 어린 나이에 두 해 동안만 머물면서 공부한 프란치스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라 로슈에서 이미 개신교 종교개혁운동에 저항하며 가톨릭 교리를 재정비해 가르치는 교육 분위기가 가운데 머물면서 미래 인문주의자를 배출할 수 있었던 체계적인 중등교육을 접했던

리출판사, 2017, 42쪽.

41) 참조: 같은 책, 47~53쪽.

42) 참조: https://www.larochesurforon.fr/uploads/LRSF_MILLENAIRE-WEB.pdf(2024년 7월 15일 검색).

것 자체만으로도 어린 프란치스코는 강한 인상과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2. 안시(Annecy)

프란치스코는 8~11세 때인 1575~78년에 라 로슈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정도, 고향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안시로 옮겨서 샤푸 중등학교(collège chappuisien)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기초 교육을 마쳤다.⁴³⁾

샤푸 중등학교는 사부아 공국 출신으로 영국 주재 신성로마제국 대사를 위해 일했던 외교관 외스타슈 샤푸(Eustache Chappuis, 1490/92~1556)가 1549년에 설립한 학교이다. 샤푸는 제네바에서 전개되는 종교개혁운동에 대항하여 개신교 목사들의 주장에 저항할 수 있는 정신을 고취하고자 이 학교를 설립하였다. 처음에 이 학교는 교구 성직자들이 운영했으나 1614년 이후 성 바오로 성직 수도자회(Clerici Regulares Sancti Pauli)⁴⁴⁾가 운영하였다.⁴⁵⁾

프란치스코의 전임 교구장인 클로드 드 그라니에(Claude de Granier, 재임 1578~1602)⁴⁶⁾ 주교도 이 학교에서 수학하였고, 사부아 공국 출신으로 문법학자이자 프랑스 아카데미 초기 회원이었던 클로드 파브르 드 보줄라(Claude Favre de Vaugelas, 1585~1650)도 이곳에서 공부하였다. 특히 이 학교는 인문주의적인 특징을 지닌 가르침으로 유명하였다. 따라서 프란치스코는 이 학교에서도 개신교 종교개혁운동에 저항하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인문주의적인 교육을 조화롭게 접했을 것이다.

43) Cf. J. Power, "Francis de Sales, St.", in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5, Detroit, MI: Thomson / Gale, 2003, p.866.

44) 바르나바회(Barnabitem)라고도 부르는 이 성직 수도자회(Clerics Regular)는 1530년에 밀라노에서 안토니오 마리아 자카리아(Antonio Maria Zaccaria, 1502~1539) 신부가 설립하였다.

45) 참조: <https://patrimoine.auvergnerhonealpes.fr/dossier/1A74002207>(2024년 7월 16일 검색).

46) 참조: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granier.html>(2024년 11월 11일 검색).

3. 파리(Paris)

프란치스코는 11세이던 1578년에 파리로 가서 예수회원이 운영하는 클레르몽 고등학교(collège de Clermont)⁴⁷⁾에서 학업을 이어나갔다. 이 학교는 1563년에 설립되었는데, 예수회원의 특별한 노력으로 그 당시 사회가 요청하는 인문주의적인 새로운 교육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다. 프란치스코는 이 학교에서 수사학을 비롯하여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철학, 신학 등을 배웠으며, 귀족으로서 익혀야 할 지식인 승마, 펜싱, 춤 등 전인적인 교육을 받았다. 특히 프란치스코는 1584~88년에 ‘인문학 과정’에 등록했을 때, 철학, 수학, 역사, 음악, 수사학, 문법 등을 공부하면서 아우구스티노 및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프란치스코는 이 과정을 마치면서 대학 학위를 취득하였다.⁴⁸⁾

이 학교가 개교했을 당시 대표적인 교사로는 스페인 출신 예수회원인 신학자 후안 데 말도나도(Juan de Maldonado, 1533~1583)가 있었다.⁴⁹⁾ 1563년 가을에 이 학교에 부임한 그는 1564~1569년에 신학을 강의한 후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프랑스 중서부 지역 푸아투(Poitou) 주(州)로 선교를 떠나 개신교로 넘어간 여러 귀족이 다시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였다. 후안은 1570~1576년에 다시 이 학교로 돌아와 신학 강의를 했는데, 이 기간에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인 귀족들이 다시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⁵⁰⁾

47) 마찬가지로 ‘collège’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고등교육 과정을 배우는 학교로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와 전문 전공 과정 대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공부하는 (초급) 학부 대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8) Cf. J. Power, “Francis de Sales, St.,” *op.cit.*, p.866.

49) 참조: Maurice Henry Coüannier(M. 앙리 코위아니에), 『성 프란치스코 드 살 우정의 성인』, 안응렬 옮김, 돈보스코미디어, 2001, 44쪽.

50) 예를 들어, 몽팡시에(Montpensier)의 공작, 루이 드 부르봉(Louis de Bourbon, 1513~1582)의 딸인 부용(Bouillon)의 여(女) 공작, 프랑수아즈(Françoise de Bourbon, 1539~1587)가 개신교 나라였던 세단(Sedan) 공국(公國, Principality)의 앙리 로베르 드 라 마르크(Henri Robert de La Marck, 재위 1560~1574) 대공(大公, prince)과 결혼하면서 칼뱅주의자가 되었는데, 후안은 그녀가 보는 앞에서 개신교 설교자들과 논쟁을 하

한편 프란치스코는 파리에 체류하는 기간에 프랑스 칼뱅주의 개신교 신도들인 위그노(Huguenot)와 가톨릭교회 사이에 벌어졌던 심한 갈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것이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운동이 발발한 이후 프랑스 왕들⁵¹⁾이 프랑스 내에서 위그노를 박해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어린 왕 샤를 9세(Charles IX, 재위 1560~1574)를 대신하여 섭정했던 태후 가타리나(Caterina de' Medici, 1519~1589)는 위그노에게 제한적인 관용을 베푸는 외교 정책을 펼쳤다.⁵²⁾ 그에 불만을 품었던 프랑스 내 가톨릭교회 측의 대표로 여겨지던 기즈(Guise)의 공작, 프랑수아 드 로렌느(François de Lorraine, 1519~1563)는 군대를 동원해 1562년 3월에 파리 근교 바시(Vassy)에서 예배 중이던 위그노를 습격해 학살하였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위그노 전쟁이라고도 부르는 프랑스 종교 전쟁이 발발하였고 1598년까지 36년간 지속되었다.

게다가 두 종교 간의 평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샤를 9세 왕의 여동생 마르케리트 드 발루아(Marguerite de Valois, 1553~1615)와 위그노 신자였던 나바르의 앙리(Henri de Navarre, 재위 1572~1610) 왕과의 결혼식 직후 1572년 8월 24일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새벽에 하객으로 파리에 와 있던 위그노 정치 지도자이자 샤토용(Châtillon)의 영주인 가스파르 드 콜리니 Gaspard de Coligny, 1519~1572)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기즈의 공작 앙리 드 로렌느(Henri de Lorraine, 1550~1580)가 앞장서고 기즈 공작 가문이 주도한 것으로 여기는 위그노 학살은 약 2개월간 프랑스 전역에서 이어졌다.⁵³⁾

이후 앙리 3세(Henri III, 재위 1574~1589) 왕이 1576년에 ‘보리의외(Beaulieu) 칙령’을 발표하면서 위그노에게 관용을 베풀자, 기즈 공

고 그녀를 가톨릭 신앙으로 되돌려 놓았다.

51) 프랑수와 1세(François I, 재위 1515~1547), 앙리 2세(Henri II, 재위 1547~1559), 프랑수와 2세(François II, 재위 1559~1560).

52) 1562년 1월에 ‘생 제르맹(Saint-Germain) 칙령’을 발표하였다.

53) 교황 요한 바오로 2세(Ioannes Paulus PP. II, 재임 1978~2005)는 1997년 8월 23일에 제12차 파리 세계청소년대회 야외 미사에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사건에 가톨릭교회가 개입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죄과 관용을 촉구하였다.

작 가문은 프랑스 가톨릭 연맹을 결성하고 앙리 3세를 압박하였다. 하지만 차기 왕으로 지목되던 앙주(Anjou)의 공작, 프랑수아(François de France, 1555~1584)가 1584년에 사망함으로써 전통에 따라서 위그노였던 나바르의 앙리가 1순위로 차기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 되자, 이에 기즈 공작 가문은 다시 앙리 3세를 위협하였다. 앙리 3세는 1588년 5월에 친위 반란을 일으켰으나 ‘바리케이드의 날’(Journées des barricades)이라고도 하는 왕을 반대하는 자발적인 대중 봉기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수세에 몰렸다.

결국, 앙리 3세가 후사 없이 사망하자 나바르의 앙리가 프랑스의 앙리 4세(Henri IV, 재위 1589~1610) 왕으로 즉위하였다. 물론 위그노라는 이유로 백성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1593년에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1594년에 샤프트르(Chartres)에서 대관식을 치른 후에야 파리에 입성할 수 있었다. 앙리 4세가 1598년에 위그노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낭트(Nantes) 칙령’을 발표하고 나서야 길었던 종교 전쟁이 막을 내릴 수 있었다.

프란치스코가 프랑스에서 목격한 가톨릭교회와 개신교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가톨릭교회가 폭력적으로 개신교를 탄압하는 모습이었다. 그와 반대로 스페인 예수회원 후안 데 말도나도가 보여 준 모습은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해 다시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평화적인 방법이었다.

4. 파도바(Padova)

프란치스코는 21~25세 때인 1588~92년에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프란치스코가 그 당시 법학으로 가장 유명한 볼로냐(Bologna) 대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파도바 대학교를 선택한 것은 그냥 우연일 수 있겠으나, 두 대학이 가지는 상이한 학풍은 그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⁵⁴⁾

파도바가 속한 베네치아(Venezia) 공화국은 근세 르네상스의 주역

54) 참조: Maurice Henry Cöüannier(M. 앙리 코위아니에), 앞의 책, 54쪽.

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일찍이 동방과의 무역으로 세상 곳곳의 사상과 문물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자유를 추구하면서 가톨릭교회와 대립하는 측면이 있었다.⁵⁵⁾ 그래서였는지 1088년에 설립된 중세 유럽 최초 대학이었던 볼로냐 대학교보다 다소 늦은 1222년에 설립된 파도바 대학교로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여와 자유롭게 학문을 연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도 1592~1610년에 파도바 대학교에서 수학 교수를 역임했는데, 그가 1613년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 1473~1543)의 지동설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힐 수 있었던 것도 자유로운 학풍에 기인했을 것이다.⁵⁶⁾

또한, 프란치스코의 박사학위 취득 시험을 주관하고 그를 극찬했던 법학자 귀도 판치롤리(Guido Panciroli, 1523~1599)는 어린 시절에 인문주의 고전 교육을 받았으며, 파도바 대학교에서 법학을 연구할 때에도 인문주의적이고 역사적인 지식을 도입해 가르쳤었다.

한편 프란치스코는 파도바 체류 시절에 예수회원이었던 안토니오 포세비노(Antonio Possevino, 1533~1611)를 영적 지도자로 삼고 신학 공부와 영성 양성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⁵⁷⁾ 그런데 포세비노 역시 프란치스코를 만나기 이전에 젊은 시절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의 면모를 보였으며, 이후 프랑스와 사부아 공국을 방문하며 반종교개혁의 주역으로 활동했고, 북유럽에서 교황 대사를 역임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은퇴 후에 고향인 만토바(Mantova)에서 백과사전학자와 서지학자로, 베네치아에서 논객으로 활동을 이어나가던 중에 프란치스코와 만났다. 따라서 인문주의자로서의 그의 풍부한 경험이 프란치스코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졌을 것이다.

55) 1494-1559년에 교황령은 신성로마제국과 프랑스와 ‘캄브레 동맹’(League of Cambrai)을 맺고 베네치아 공화국과 65년간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신성로마제국과 프랑스 내에 개신교 세력이 증가하면서 동맹의 연대가 느슨해져 결국 베네치아 공화국이 승리하였다.

56) 참조: Michael White(마이클 화이트), 『갈릴레오』, 김명남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9, 109~115. 137~138쪽; James Reston, Jr., *Galileo: a Life*, Washington, D.C.: Beard Books, 2000, pp.39. 53~54.

57) Cf. J. Power, “Francis de Sales, St.,” *op.cit.*, p.866.

프랑스 문학 비평가이자 역사학자였던 앙리 브레몽(Henri Brémond, 1865~1933) 신부에 따르면, 그리스도교 인문주의가 부정적인 감각의 원죄보다는 긍정적인 감각의 구원을 중심 교리로 삼으면서 사색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가운데, 경건한 인문주의는 그리스도교 인문주의보다 비록 사색적인 측면이 부족하지만 대신 더 실천적이며 대중적이라는 것이었다.⁵⁸⁾ 따라서 프란치스코가 1586년 12월에 예정설에 빠져 고통을 당하다가, 1587년 1월에 생-에티엔느-데-그레(Saint-Étienne-des-Grès) 성당을 순례하면서 성모님께 전구를 부탁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죄보다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스도교 인문주의 교리의 영향 덕분이었을 것이다.⁵⁹⁾

그러나 인문주의라고 해서 문헌만 연구하고 있을 수는 없다. 프란치스코는 인간 개개인의 이해를 극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개개인을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런 인간 개개인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깊이 깨닫고 사랑할 수 있었다. 문헌 연구만을 통해 본의 아니게 비판적으로 되어버린 인문주의와는 달리 애덕 실천을 통해 살아 있는 모습을 보인 경건한 인문주의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많은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IV. 수도회 설립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은 요안나 프란치스카 드 샹탈(Jane Frances de Chantal, 1572~1641) 성녀와 함께 1610년에 사부아 공국, 안시에서 ‘성모 마리아 방문 수녀회’(Ordre de la Visitation de Sainte-Marie)를 설립하였다. 프란치스코가 수녀회를 설립하면서 가졌던 첫 계획을 그 당시 프랑스 교회가 수도회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던 견해와 경험

58) Cf. Henri Brémond, *Histoire Littéraire du Sentiment Religieux en France depuis la Fin des Guerres de Religion jusqu'à Nos Jours. Tome I: L'Humanisme dévôt*, Paris: Librairie Armand Colin, 1967, pp.11~12. 17.

59) 참조: 전영준, 「그리스도교 휴머니즘」, 『사목연구』 28(2011/겨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42-245쪽.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프란치스코의 사목적 지향점이 무엇이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1. 전통적인 수도회

서방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영향력이 큰 수도회를 꼽는다면 누르시아의 베네딕도(Benedictus Nursinus, 480/90~555/60) 성인이 설립한 ‘베네딕도 수도회’(Ordo Sancti Benedicti)일 것이다. 누르시아의 베네딕도 성인은 거룩한 독서를 통한 성경 묵상과 시간경마다 시편 기도를 읊으면서 관상 기도 생활을 실천하도록 규정한 『수도 규칙』(*Regula Benedicti*)⁶⁰⁾을 저술하였다. 사실 중세 대부분 수도원은 베네딕도 수도회 소속이거나 베네딕도 규칙서를 사용하였다. 베네딕도 성인은 무릇 수도자라면 수도원에 함께 모여 정주(定住) 생활을 실천하는 ‘회(會)수도자’이기를 강조하였다. 다만 베네딕도 성인은 수도자가 수도원 안에서 장기간 수도 생활을 실천하면서 훈련을 쌓은 후에 ‘독(獨)수도자’ 또는 ‘은수자’(隱修者)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였다.⁶¹⁾ 베네딕도회 수도자들은 ‘기도하고 일하라’는 표어가 대변하듯이 하루 중 일정하게 배분된 시간에 육체노동과 거룩한 독서를 실천해야만 했다.⁶²⁾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수도자와 수도원이 초심을 잃을 때가 있었으며, 그럴 때마다 특히 프랑스 교회 내에서는 수도원 쇠신 운동이 일어났다.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수도원이 각기 고립되어 베네딕도 규칙서를 각자 다르게 해석해서 수도 생활을 실천하거나 왕족과 귀족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역할의 수도원으로 변하면서 관상 기도 생활 중심의 수도원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자, 9세기 초에 프랑크 왕국 샤를마뉴(Charlemagne, 재위 768-814) 황제의 명령으로 베네딕도회 수도자 아니안의 베네딕투스(Benedictus Anianensis, 750경~821)는 각 수도원에서 따르는 변형된 규칙서를 모아서 통일

60) 참조: Benedictus(베네딕도), 『수도 규칙』, 이형우 역주, 분도출판사, 2000.

61) 참조: 『수도 규칙』, 1.

62) 참조: 『수도 규칙』, 48.

하여 『수도 규칙』의 정신에 따라서 초심으로 돌아가 수도 생활을 개선하는 수도원 개혁을 이끌었다.

하지만 여전히 왕족과 귀족의 횡포로 수도원이 수도원답지 않게 운영되고 있을 10세기 초에 아키텐(Aquitaine)의 공작 기욤 1세(Guillaume I, 875~918)의 지원으로 베네딕도회 수도자 베르노(Berno, 850경~927) 원장은 수도원이 수도원답게 운영되고 수도자도 수도자답게 관상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프랑크 왕국, 부르고뉴(Bourgogne) 지방 클뤼니(Cluny)에 클뤼니 수도원을 설립하고 ‘클뤼니 개혁’ 운동을 이끌었다.

클뤼니 개혁에도 불구하고 수도자가 관상 기도 생활에 전념할 수 없다고 생각한 수도자들을 중심으로 11세기에 초심으로 돌아가려는 일련의 수도회가 설립되었다. 랭스(Reims) 대교구 사제였던 브루노(Bruno Cartusiensis, 1030/32~1011)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1084년에 프랑스 남동부 샤프트뢰즈(Chartreuse) 계곡에서 침묵 속에 은수 생활을 실천하는 ‘카르투시오회’(Ordo Cartusiensis)를 설립하였다. 베네딕도회 수도자 몰렘의 로베르투스(Robertus Molesmensis, 1028~1111)는 20여 명의 수도자와 함께 1098년에 프랑스 중동부 시토(Cîteaux) 계곡에서 청빈한 은수 생활을 실천하는 ‘시토회’(Ordo Cisterciensis)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프랑스 교회는 수도자라면 수도원에서 함께 하든지 은수처에 기거하며 혼자 하든지, 세상과 거리를 두고 관상 기도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는 개념을 형성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조금 다른 형태의 새로운 수도회도 등장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Hipponensis, 354~430) 성인이 교구 사제들과 함께 수도 생활을 실천했던 경험을 살려 작성했던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서』(*Regula Sancti Augustini*)⁶³의 규정을 따르면서 수도 생활에 사목 활동이 결합한 ‘의전 수도회’(Canons Regular)가 출현하였다. 즉, 1039년에 프랑스 남부 아비뇽(Avignon)에서 ‘아비뇽의 생 루프 수도회’(Abbaye Saint-Ruf d’Avignon)⁶⁴와 1090년에 프랑스 북부 아

63) 참조: Adolar Zumkeller(아돌라르 쥘켈러) 주석,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서』, 이형우 옮김, 분도출판사, 2006.

64) 아비뇽 주교좌 성당 의전 사제단 소속 폰티우스(Pontius), 아르노(Arnaud), 오딜롱

르투아(Artois)에서 ‘아뤼즈 수도회’(Abbaye d’Arrouaise)⁶⁵)를 비롯하여 1120년에 프랑스 라온(Laon)에서 은수 생활 중심의 프레몽트레회(Chanoines Réguliers de Prémontré)⁶⁶)와 1108년에 파리에서 지적 활동 중심의 생 빅토르회(Chanoines de Saint-Victor)⁶⁷) 등이 설립되었다.

한편 13세기에 프랑스 안팎에서 설립되어 근세에 프랑스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탁발 수도회가 출현하였다. 도미니코(Domingo de Guzmán, 1170~1221) 성인이 1215년에 툴루즈(Toulouse)에서 시작한 ‘설교자들의 수도회’(Ordo Fratrum Praedicatorum), 즉 도미니코회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Franciscus Assisiensis, 1182~1226) 성인이 1209년에 아시시(Assisi)에서 시작한 ‘작은 형제회’(Fratres Minores), 즉 프란치스코회가 대표적인 탁발 수도회이다. 탁발 수도회는 복음적 가난을 실천하며 신앙을 수호하기 위하여 순회 설교를 하는 사도적 활동을 실천하였다. 물론 탁발 수도회는 기존의 봉쇄 관상 수도회와는 여러모로 비교되었다. 탁발 수도자들은 수도원을 도시에 설립하였지만, 그마저도 정주의 의무에 놓이기보다는 지적 양성을 받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순회 설교에 헌신하였다.⁶⁸)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 시대에 프랑스 교회는 봉쇄 관상 수도회와 약간 결이 다른 탁발 수도회도 가톨릭교회 안에서 전통적인 수도회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탁발 수도회 설립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2. 새로운 수도회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은 처음에 정식 수도회를 설립할 계획이 없었다. 따라서 그는 외적인 서원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정결, 청빈, 순명의 복음삼덕 역시 내적인 덕행으로 실천하도록 권고하였다. 공

(Odilon), 뒤랑(Durand) 등이 성 밖 듀랜스(Durance) 강 인근에 폐허가 된 경당을 재건해 설립하였다.

65) 은수자 헬터마(Heldemar)와 루게리우스(Ruggerius)가 아뤼즈 숲에 설립하였다.

66) 산텐의 노르베르(Norbert de Xanten, 1080~1134)가 프레몽트레 계곡에 설립하였다.

67) 샴포의 기욤(Guillaume de Champeaux, 1070~1121)이 파리 근교에 설립하였다.

68) 참조: Jesús Álvarez Gómez(헤수스 알바레스 고메스), 『수도생활 역사 II』, 강운자 옮김, 성바오로, 2002, 184~193쪽.

동체 자매들은 봉쇄 수도 생활도 수련 기간 1년만 실천했으며, 이후에 병자나 가난한 자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었다. 게다가 프란치스코는 다른 수도회에서 입회가 거절된 자, 과부, 노인, 장애인 여성에게까지 이 공동체에 합류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였다. 프란치스코는 현장에서 애덕 실천이 함께 이루어지는 수도 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⁶⁹⁾

그런데 1615년에 리옹(Lyon)에서 두 번째 공동체를 설립할 때, 리옹 대교구 드니-시몽 드 마르크몽(Denis-Simon de Marquemont, 재임 1612~1626) 대주교는 전통적인 수도회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공동체에 봉쇄 생활과 종신 서원을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다만 수도 규칙은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서를 따를 수 있다고 권고하였다. 프란치스코는 리옹 대주교의 요청을 수락하고 ‘방문 수녀회’의 회헌을 수정했으며, 교황 바오로 5세(Paulus PP. V, 재임 1605~1621)가 회헌을 승인하면서 수녀회는 교회법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교황 우르바노 8세(Urbanus PP. VIII, 재임 1623~1644)는 교황 칙서를 통해 수녀회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처음에 마련했던 공동체 규율을 보존할 수 없었으나,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서를 따를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전 수도회에서 실천하던 사목 활동 개념을 공동체에 남길 수 있었다.⁷⁰⁾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프란치스코의 계획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모습으로 구현되었다. 프란치스코는 1618년에 파리에서 빈첸시오 드 폴(Vincent de Paul, 1581~1660) 성인을 만나고, 그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결국, 빈첸시오는 1625년에 ‘선교 수도회’(Congrégation de la Mission) 또는 ‘라자로회’(les Lazaristes)라고 불리는 사제들로 구성된 사도 생활단(Societas vitae apostolicae)을 설립하여 시골에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화를 위해 활동하였다. 빈첸시오는 1633년에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Filles de la Charité de Saint Vincent de Paul)라고 불리는 여성들을 위한 사도 생활단도 설립했는데, 자

69) 참조: Maurice Henry Couannier(M. 앙리 코위아니에), 앞의 책, 269. 331~333쪽

70) 참조: 같은 책, 406~409쪽.

매들은 봉쇄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 하며 직접 돕는 활동을 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생전에 자신이 계획한 모습의 수도회가 설립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가 계획했던 새로운 형태의 수도 생활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현실로 구현되었다.⁷¹⁾

V. 끝맺으며

몇 년 전에 오랫동안 행정 공무원을 했던 분이 자신이 공직 생활 중에 경험한 내용을 담아 『현장에 답이 있다』⁷²⁾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다. 이 책 제목이 영향을 주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으나, 그 이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이라는 뜻을 지닌 사자성어(四字成語)인 ‘우문현답’(愚問賢答)을 다르게 해석해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도 기업인도 심지어 정치인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직접 듣지 않고서는 늘 탁상공론(桌上空論)에 그쳐서 어떤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자세가 프란치스코의 사목적 방향이지 않았나 싶다.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은 저서 『신심 생활 입문』에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하는 영성 생활 방식으로 하느님만 바라보며 관상 기도 생활을 실천하는 확일적인 수도자의 방식을 권고하지 않고,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영성 생활을 실천하라고 강조하였다. “귀족과 직공, 왕족과 노복, 과부와 주부, 소녀들의 차이에 따라 그들의 신심은 각각 달라야 한다. 또 한층 이것을 개인의 능력, 일, 직무에 맞추어야 한다”(제1부, 제3장). 프란치스코는 근세 들어 널리 확산하였던 인문주의 정신을 그리스도교 영성 생활에 긍정적으

71) 참조: 같은 책, 410-411쪽.

72) 참조: 김영호, 『현장에 답이 있다』, 일리, 2014.

로 적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교 신자 한 명 한 명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개개인에게 맞춤형 영성 생활 방식을 추천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프란치스코는 현장성(現場性)을 살려서 대중에게 다가가 인간 개개인을 이해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사목적 사랑을 실천하는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가끔 한국 교회가 로마 교회보다 훨씬 더 로마 교회 같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한국 교회는 교황님과 보편 교회의 가르침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따르고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전례 예식 집전 측면에서만 보아도, 로마에서 목격하는 전례 예식은 웬지 허술해 보이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문헌에 쓰인 내용에 너무 매몰되어 생동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글에 담긴 방식에만 매달리는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옛도시 같아 보이는 로마이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 본당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가 사목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끊임없이 찾아서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 교회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본다.

프란치스코의 저서 『신애론』(*Traité de l'amour de Dieu*)⁷³)은 자신이 설립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영적 담화를 주려는 목적에서 수도자처럼 영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한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저술해서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경청할 의미 있는 권고가 있다. “영혼들 중에는 위대한 행위나 이상한 고통으로써 주님을 위해 굉장히 봉사할 것을 계획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그런 행위나 고통의 기회는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어찌면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단한 사랑을 실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때때로 아주 큰 잘못이라 하겠다. [...] 상상으로는 대단히 용감하면서도 실천에 있어서 대단히 비열함은 다시없는 유혹이 아니겠는가?”(『신애

73) 참조: Franciscus Salesius(프란치스코 살레시오), 『信愛論』, 변기영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7.

론』, 제12권, 제6장). 이는 하느님 사랑은 관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데 그 방식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다. 현실이나 현장을 도외시한 하느님 사랑도 없고, 영성 생활도 없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 신자들도 그리스도교 신앙을 관념에만 가두어 두지 말고, 현실에서, 현장에서 이웃 사랑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의 가르침을 본받아 그분의 사목적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길일 것이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 Bremond, Henri, *Histoire Littéraire du Sentiment Religieux en France depuis la Fin des Guerres de Religion jusqu'a Nos Jours. Tome I: L'Humanisme dévôt*, Paris: Librairie Armand Colin, 1967.
- Hughes, Philip, *A Popular History of the Catholic Church*,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54.
- Mallett, Michael/Shaw, Christine, *The Italian Wars, 1494-1559*, UK: Person Education Limited, 2012.
- Reston, Jr., James, *Galileo: a Life*, Washington, D.C.: Beard Books, 2000.
- Álvarez Gómez, Jesús(헤수스 알바레스 고메스), 『수도생활 역사 II』, 강운자 옮김, 성바오로, 2002.
- Benedictus(베네딕도), 『수도 규칙』, 이형우 역주, 분도출판사, 2000.
- Comby, Jean(장 콩비), 『세계 교회사 여행 2 근대·현대 편』, 노성기·이종혁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2.
- Coüannier, Maurice Henry(M. 앙리 코위아니에), 『성 프란치스코 드 살 우정의 성인』, 양응렬 옮김, 돈보스코미디어, 2001.
- Davies, Norman(노먼 데이비스), 『유럽: 하나의 역사』, 왕수민 옮김, 도서출판 예경, 2023.
- Franciscus Salesius(프란치스코 살레시오), 『信愛論』, 변기영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7.
- _____, 『심신 생활 입문』, 서울가르멜여자수도원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1.
- Franzen, August(아우구스트 프란쾨), 『教會史』, 최석우 옮김, 분도출판사, 1996.
- Jedin, Hubert(후베르트 예딘), 『세계공의회사』, 최석우 옮김, 분도출판사, 2005.
- Lindberg, Carter(카터 린드버그), 『유럽의 종교개혁』, 조영천 옮김,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 Lindsay, Thomas M.(토마스 M. 린제이), 『宗教改革史(II)』, 이형기·차종순 옮김,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Purcell, Mary(메리 퍼셀), 『베드로 파브르 성인』, 김치현·김학준 옮김, 가톨릭

릭출판사, 2017.

Reinhard, Wolfgang(볼프강 라인하르트) 엮음, 『(하버드 C.H.베크) 세계사: 1350-1750 세계제국과 대양』, 이진모·공원국 옮김, 민음사, 2020.

Rivière, Daniel(다니엘 리비에르), 『프랑스의 역사』, 최갑수 옮김, 까치글방, 2003.

Schaff, Philip(필립 샤프), 『스위스 종교개혁』, 교회사 전집 8, 박경수 옮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White, Michael(마이클 화이트), 『갈릴레오』, 김명남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9.

Zumkeller, Adolar(아돌라르 줌켈러) 주석,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서』, 이형우 옮김, 분도출판사, 2006.

김영호, 『현장에 답이 있다』, 일리, 2014.

김용구, 『世界外交史(上)』,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임영태, 『스토리 세계사 5 중세편·II』, 21세기북스, 2014.

허연, 『이탈리아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2. 정기 간행물 및 사전

전영준, 「그리스도교 휴머니즘」, 『사목연구』 28(2011/겨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26-252쪽.

Power, J., “Francis de Sales, St.”, in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5, Detroit, MI: Thomson/Gale, 22003, pp.866-869.

Kelly, J. N. D. / Walsh, Michael(존 노먼 데이비슨 켈리·마이클 월시), “비오 7세”, 『옥스퍼드 교황 사전』, 변우찬 옮김, 분도출판사, 448-450쪽.

_____, “펠릭스 5세, 대립교황”, 『옥스퍼드 교황 사전』, 변우찬 옮김, 분도출판사, 367쪽.

_____, “클레멘스 [7세], 대립교황”, 『옥스퍼드 교황 사전』, 변우찬 옮김, 분도출판사, 346-348쪽.

3. 인터넷 검색

<https://patrimoine.auvergnerhonealpes.fr/dossier/IA74002207>(2024년 7월 16일 검색).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con.html>(2024년 5월 30일 검색).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dlbaup.html>(2024년 5월 28일 검색).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dlroche.html>(2024년 5월 19일 검색).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granier.html>(2024년 11월 11일 검색).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meezf.html>(2024년 5월 19일 검색).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monm.html>(2024년 5월 30일 검색).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pagetj.html>(2024년 5월 30일 검색).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savoiea.html>(2024년 5월 19일 검색).

<https://www.catholic-hierarchy.org/diocese/danne.html>(2024년 5월 29일 검색).

<https://www.catholic-hierarchy.org/diocese/dcham.html>(2024년 5월 30일 검색).

<https://www.catholic-hierarchy.org/diocese/dg216.html>(2024년 5월 19일 검색).

<https://www.catholic-hierarchy.org/diocese/dlaus.html>(2024년 5월 29일 검색).

<https://www.laroquesurforon.fr/histoire-1150>(2024년 7월 15일 검색).

https://www.laroquesurforon.fr/uploads/LRSF_MILLENAIRE-WEB.pdf(2024년 7월 15일 검색).

프란치스코 드 살(François de Sales, 1567~1622) 성인은 제네바 교구 장 주교로 17세기 초 개신교의 도전에서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고 신앙인을 보호하였다. 도시 제네바(Geneva)는 제네바 교구 주교좌가 있는 곳이었으나 주변 정치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민의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16세기 초에 개신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제네바 주교좌는 1535년에 안시(Anncey)로 옮겨서 개신교로 옮겨간 신앙인들이 다시 가톨릭교회로 되돌아오도록 기나긴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유소년 시기에 라 로슈(La Roche)와 안시(Anncey)에서 수학하였는데, 두 도시에서 인문주의 학풍을 접하였고, 개신교에 저항하는 성직자와 지성인을 목격할 수 있었다. 청소년 시기에 파리(Paris)에서 수학했던 프란치스코 성인은 일부 가톨릭 신앙인들이 개신교 신도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부 가톨릭 성직자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설득해 가톨릭교회로 되돌아오게 하는 평화의 방법을 실천하는 것도 목격할 수 있었다. 청년 시기에 파도바(Padova)에서 법학을 수학할 때 프란치스코 성인은 영성 훈련을 받고 신학을 공부할 기회도 얻었는데, 자유스러운 학업 분위기에서 인간 개개인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근세에 프랑스 교회는 봉쇄 관상 기도 생활을 실천하는 수도원의 모습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었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출신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수도원 입회를 허락하고 수도자들이 주위에 가난하고 병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수도원 설립을 계획하였다. 이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관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실천하기를 바랐던 경건한 인문주의자로서 프란치

스코 성인의 사도적 사랑의 방향이기도 하였다.

- ▶ 주제어: 프란치스코 드 살, 그리스도교 인문주의, 경건한 인문주의자, 제네바 교구, 사부아 공국.